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515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공예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민혜*, 허인열**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A Qualitative Study on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With a focus on craft education activities -

Min-hye Lee*, In-yeol Heo**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hD, Seoul Arts & Culture Education Cente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요 약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공예교육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다학문간 융합교육을 지향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을 위해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교육회기 이후 한 달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학급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학문의 즐거움과 유쾌함, 흥미를 보였다. 둘째, 수업참여의 긴장감이 완화되며 교육활동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며, 공예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협동 활동을 통한 함께 있음, 공존의 느낌을 받았으며, 친구와 교사로부터 지지와 도움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넷째,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주제어 : 장애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공예교육활동, 융합교육,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o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Craft education oriented toward activities convergence education. The investigator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seven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 special high school class for a month after the educational sessions were over.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d the joy, pleasure, and interest of study, which they used to have a difficult time experiencing in a common class. Second, they became relaxed with their participation in lessons, felt comfortable through educational activities, and had a positive attitude. Third, they had a feeling of being together and coexistence through collaborative activities. Finally, they were able to share each other's ideas, listen carefully to their friends, talk about works they created, and experience close relationships with classmates.

Key Words : Adolescent with disabilities, Culture and art education, Craft education activity, Convergence education, Qualitative study

Received 8 August 2016, Revised 22 Nov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Min-hye Lee
(Dep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hD)
Email: hredumin@gmail.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문제제기

문화예술교육은 체험의 의미보다는 행위 주체자가 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역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펼쳐야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헌법 제 10조에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인간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도 위치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1]에 대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형태로 정책이 펼쳐지게 된다.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에 예술강사를 파견 아동청소년 및 소외계층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지원사업은 각 학교에 배치된 예술강사가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애문화예술교육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술 분야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가 확대 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공헌의 일환을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 자조 모임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적 요소가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시급한 과제로 설명하고 있다.

특수학급 확대와 통합교육 실시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환경으로 통합교육이 70.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7] 따라 작금의 현실에서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경험과 이해, 공간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문화예술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일반학교 안에서 발달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과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였으나 문화예술향유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 이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장애인의 발달에 중용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있으나 이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특수교육과 문화예술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지도자가 부족하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보와 연수가 부족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9]. 한편 교육활동의 공간에서의 발달 장애청소년들의 활동을 예술활동이라 명명할 수는 없지만 교육활동을 통해 정서를 표현해 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교육활동 자체가 중요한 소재가 되며 그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 역시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16]. 예술활동이 비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의 표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장애청소년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한 영역인 공예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청소년의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설정한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변화는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참여함으로 발달장애청소년들의 경험의 기술을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둘째,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 사회· 정서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청소년이 교육활동 참여를 통해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회· 정서적인 변화의 내용이 분석하고자 한다.

1.1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과 그것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틀어 예술이라 이름 한다면 예술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것이다. 고대인의 동굴벽화나 암각화 뿐 아니라 우리 문화 안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표상에는 그것을 고유하는 사회와 문화 전체의 이상, 덕 진리 이해의 특성이 담겨있다[6].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고 정서적인 편안함과 자아성찰 및 스트레스 해소, 만족감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화예술은 그것을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계발, 자기정화, 자기표현 등 이차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고 알려졌다[9].

예술교육은 직접 체험을 통해 감각기능을 발달시켜 문제의식의 민감성과 사고의 융통성을 향상시켜 주고 종합 능력과 분석력을 발달시켜 개념구조의 복합성을 이해시켜주며 감수성과 창의성을 길러 주고 비평적 사고를 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구축하며 규칙, 근면에 대한 삶의 가치를 배우고 학교 생활 외의 삶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습관을 익히게 된다[3].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인 삶의 실현과 문화적 향유 능력의 개발을 위해 학교교육이라는 공교육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여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중요한다. 하지만 현재 사회의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은 현 예술교육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단순한 개념적 이해 내용 전달 및 단순한 문화예술 소비에 국한 되어서는 안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발전해 온 맥락과 그 변화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사회적 맥락을 기반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15].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추진의 본격화를 위해 2009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 15조의 2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문화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고,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한다[4].

이렇듯 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시 제약이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를 장애인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및 창작활동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역시 장애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인 스스로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은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예술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10].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이 스스로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 공동체의 형성, 문화예술 참여와 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회참여,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4] 또한 학교 교육현장의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은 긍정적이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감성발달 및 정신적, 신체적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정서안정, 스트레스 해소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필수적이다[17]. 하지만 교수법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부재하다고 여겼으며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와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였다[5].

1.2 공예교육

1.2.1 공예

공예(Art & Craft)는 미술의 한 영역으로 실용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쓰임에 의해 나타나며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왔다. 생활용품이라는 실용성이라는 특징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맥을 함께 하였으며 그 기능미와 함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공예는 공(工)과 예(藝)'가 결합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고, 그 모양과 색, 재료 등을 변화시키면서 생활속의 미술로 공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자리잡은 공예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류층이 향유하던 귀족공예도 존재하였지만 공예는 민예(民藝)라는 의미의 민중예술로 자리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민중적인 조형예술을 공예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서양에서의 공예의 개념은 'Craft'라는 단어로 통칭되

며 수공예의 의미였던 공예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순수미술(Fine art)와 비교되는 응용미술(Applied art)이라는 개념으로 불리게 된다. 동서양에서의 공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용적인 기능을 지니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재료에 대한 기술지식과 손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인 사항이다. 또한 사물(재료)에 다한 '목적'이 중요하며 실용적 재료는 기능이라는 목적과 결합한 사물이며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 공예품은 형태, 재료, 기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외에 개인의 기호와 주관적인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공예는 '기능적 형태'와 '양식적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면 그 산물은 물질적이자 사회적이다[14].

1.2.2 공예교육

공예교육은 정체성 확립의 시기에 자아표현의 기회가 가능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도 있다. 이는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투영되고 감정과 정서를 타인과 교감이 가능케 한다.

공예교육은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유아부터 노년까지 창작활동이 가능한 영역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는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청소년역시 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구하고 자기표현 및 창작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창조물에 대한 만족감 역시 비장애 청소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힘들 장애학생들의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생각의 표현은 글을 쓰지 못하거나 글로 나타내기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타인에게 전달하기도 적절한 도구이다.

공예교육은 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공예활동은 시감각적 감각과 지적 감각이 밀접하게 교감하고 시지각의 성장발달과 조형능력을 꾀하는 의도와 더불어 지적인 측면까지 고려된다. 단순한 조작활동이 아닌 조형감각의 발달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양성하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용, 적응 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목적을 둘 수 있다[11].

1.3 용어의 정의

1.3.1 발달장애청소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로 지적장애과 자폐성장애을 말한다.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며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의 범주 안에 해당하여 발달장애청소년으로 통칭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연구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공예교육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경험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15명의 발달장애 청소년과 8개월간 2시간 16회기 공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학을 활용한 공예, 과학을 활용한 공예 수업 등 다학문간 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후 연구대상자에게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질문 내용을 수정한 후 완성된 질문지로 연구 대상자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의 유목화를 위해 지속적 비교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2.1 연구 대상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음성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학교 교사의 추천으로 선정된 7명이다. 연구 전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학부모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였으며, 인터뷰는 30분 정도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 공간은 장애 청소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학교교실을 이용하였으며 면

접의 모든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자료를 전사하였다. 인터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기인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Table 1> Participants background

Num	Name	high schoolGrade	Gender	Age
1	Hana	2	female	18
2	Sejin	2	female	17
3	Ayoung	2	female	16
4	Jungsun	2	female	16
5	Duna	3	female	16
6	Miso	3	female	17
7	Jimin	3	female	16

2.2 연구팀

본 연구팀은 연구자 1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였다. 발달장애 학생 전문가로 통합교육으로 석사논문을 쓴 연구자 1인과 특수교육 행정가로 활동하였으며 특수체육으로 석사논문을 쓴 연구자 1인과 공예활동으로 석사 논문을 쓰고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로 팀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시작 전 모임을 통해 연구방법과 인터뷰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 및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논의를 하였다.

2.3 인터뷰 도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에 관한 심층적 탐색을 위해 면접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초기에는 답하기 비교적 용이하도록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다가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 떠오르는대로 편하게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수업관찰과 장애 청소년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의미단위로 개념화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발달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장애당사자인 발달장애청소년의 인터뷰를 통해 의미있는 진술의 범주화를 하였다.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의 경험 상 큰 변화는 2개의 주제에 따른 6개의 상위범주로 나누고 의미단위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해석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자문·검토를 받았다. 또한 인터뷰 내용 외에 장애당사자의 문화예술활동 글쓰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내용 및 일련의 과정과 결과 내용을 질적 연구방법을 시행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대학원생들의 피드백을 얻었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changes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culture and arts education

Topic	Category	Contents of meaning units
Positive changes for culture and arts	Pleasure of learning	School is fun in learning Gains confidence of different educational activities Curious about the next class contents I feel like a student Perceive differently about my body
	Comfortability of educational space	The school feels comfortable space Low tension between general friends Talk a lot with friends who I usually didn't get to talk much with in craft lesson The teacher's lesson is so interesting that it doesn't feel like studying
	Growth of Professionalism as artists	Became very interested about culture and art Search for different craft-related activities Search for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related art activities Have tools that I want to have Feel great when I look at the artwork I created
Social·emotional significant changes	To be together' To receive help	Enjoy the journey of creating artworks in collaboration Excited about making massive artwork with friends Can compare my artwork with my friend's artwork Receive help from others for difficult and dangerous work Ask help for difficult activities to do it alone Share the artwork I created today with others as it becomes the story subject
	Acceptance' support' and consolation of school	Receive praise from others when I create beautiful artworks. Others are thankful when I give works I created as gift Think about works of art you want to create and tell your teacher
	To share thoughts on life and experiences	Talks more than usual Feels like superman who can create something Felt nervous at first when I created a work of art and made presentation, but I can speak with confidence now. New discovery of myself

3.1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험은 어떠한가?

3.1.1 학문의 즐거움, 공예교육의 편안함, 긍정적인 태도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자 장애청소년으로 구성되었기에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예교육에 대한 참여를 즐거워했으며,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일반학급에서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빠르게 수업이 진행되지만 장애청소년에 적합한 공예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업 참여에 대해 불안감이 없어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매일 운동화 끈 묶는 연습을 해요. 근데 잘 안돼요. 운동화 끝이 풀리면 학교에서 매우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체육 할 때는요. 근데 공예시간에는 끈이 풀려도 괜찮아요. 편안함이 있어요. 긴장감이 없어져요. 재미있어요. 손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야~ 내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손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석도 붙이고, 색도 칠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miso)

전통공예나 현대 공예작품은 장애청소년이 접하기 힘든 분야로 멀게만 느껴졌던 공예교육을 체험함으로 문화예술교육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예가 자신의 삶에 매우 가까이 있음을 체감하며 공예수업에 대해 편안함을 가지고 다른 수업에 대한 근긴장도도 낮아지며 불안감을 낮추고 공예수업 뿐 아니라 다른 수업에의 참여도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수업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클레이를 좋아하는데 클레이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클레이보다 더 단단한 걸 가지고 오셨어요반죽하는데 손에 힘이 많이 들긴 했는데 클레이는 장난감이나 작은 인형 밖에 못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재료로는 핀이랑 머리끈 제가 만들고 싶었던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수업시간에 매일 웃으면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니 너무 좋아요선생님이 잔소리도 없고....."(Sejin)

3.1.2 예술가로서의 전문성 발휘

공예교육 일상생활에서의 재료를 이용하여 손기능 활동을 통해 예술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예술적인 경험은 실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것이기에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장애 청소년은 공예활동을 통해 자신이 예술활동을 주체자로서 행하고 있음은 인식하고 더 나은 기능으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경험 자체가 표현의 일환이기도 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은 장애청소년의 예술가로서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만화가로 바꿨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색연필, 파스텔, 물감, 염색 그림 그리는 것이 물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리니 그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어린이 병원에서 하는 미술프로그램도 할 거예요. 웹툰도 봤는데 흰둥이 잘 그린다고 칭찬 받았어요. 우리반 아이들 캐릭터 그린 거 보셨죠 세미언니 얼굴그림 봤어요? 귀엽죠?"(Hana)

"인형 옷 만들거에요. 인형옷 만드는 사람이요. 해보니까 집에 있는 천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집에 망사 천이랑, 청바지 버리려고 엄마가 놔 둔거 있어요. 청바지에 그림을 그려서 가위로 자르고요바늘로 꿰매요. 그러면 옷이 완성!!!"(miso)

3.2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장애 청소년 개인의 사회·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가?

3.2.1 공예교육은 함께하기, 도움 받기

공예교육이 개별적인 활동이기도 하지만 협업을 통한 전체활동이기도 하다. 함께 '신체완성하기'를 통해 협동심을 발휘하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도자공예를 통해 '놀이'활동을 겸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공존의 즐거움을 느꼈다. 함께함으로 즐거움이 배가 되기도 하고 불안함을 줄이고 편안함으로 창작활동의 여정을 즐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제는 흙을 가지고 만드는 수업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릇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게 온

교실에 비닐을 깔고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노는 것이었어요. 칠판에 흙덩이를 던지기도 하고, 손으로 부드러운 흙을 주물거리기도 하고 미운 사람생각하며 던지라고 해서 오빠 생각하며 힘껏 던졌어요맨날 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풍경을 만들었어요 풍경은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끈 묶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할 거 같아요(Duna)

공예교육 중 가죽을 이용하는 활동이나 불을 이용한 작품 활동은 발달장애 청소년이 세밀하게 작업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발달장애 청소년은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가만히 있어 작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까지 교육의 방식이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험이 많았기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 할 필요를 느끼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예교육 시간에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명하게 말하도록 하였으며, 작업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교육하여 이 단계의 작업 과업이 무엇인지 인지하도록 하였다.

"어린 왕자 동화가 책에 나오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칠보를 공예시간에 만들었어요 작은 판에 어린왕자를 그리고cmc가루를 색깔에 맞게 올리고 엄청 정교한 작업이거든요. 흰색은 인기가 많아서 빨리 떨어져요. 서로 쓰겠다고..... 물도 넣고 선 작업도 해야 돼요. 근데 가마에 구워야 되는데 엄청 뜨겁거든요위험하기도 하대요. 그럴 땐 선생님이 장갑을 끼고 가마안에 판을 넣어 주시는데요. 판이 온도가 높으면 새까맣게 되기도 하고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시 작업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액세사리 만들때 보석이 완성 되는 거 보면 정말 예뻐요뜨거운 거 만드는 활동은 선생님이 도와주시구요가장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제가 했어요(Jungsun)

3.2.2 학교 공간의 지지, 요구수용, 위로

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이다. 학교 안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 속의 자신을 발견하고 벽처럼 느껴지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지 받으며 설계된 자신의 생각이 수용되며, 자신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곳을 탈바꿈된다. 작품의 결과물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지지 받거나 위로를 받음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며 주위의 공예품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것'을 만들어 볼수 있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된다.

"담임 선생님께 가죽으로 만든 동전 지갑을 선물했어요. 선생님에 '네가 만든거야?'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네 네가 만들었어요.'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요 근데 크게 이야기 못했어요. 부끄러워서."(Ayoung)

"염색을 했는데 소목염색도 하고 하나는 뭐지 생각은 나지 않는데 보라색도 하고 노랑색도 하고 아황토 염색도 했잖아요. 염색도 엄청 다양하다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옛날에는 물감이 없었잖아요그냥 나무물, 흙, 풀잎 이런거 가지고 색을 냈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근데 밥먹다 반찬 흘려도 풀밭에 가보면 옷에 물이 들어 있잖아요. 그 생각했어요. 흰 천에 무슨 색을 염색할까? 생각요."(Sejin)

3.2.3 생각과 경험 나누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미적욕구를 작품으로 창조해 내는 것 이외의 생각, 정서, 심리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일반학급에서 자기검열로 자신의 모습에 항상 조심을 기했던 발달장애 청소년이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득하며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 작품은 카네이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이션하고 다르죠? 이건 엄청 커요. 크니까 사랑이 더 담긴 거 같아요. 이거 누구 줄 거냐구요? 우리 엄마 줄 거에요. 우리 엄마는 김밥집 사장님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요.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이 꽃을 줄 거에요. 가게에 놔 둘 거에요. 전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빨강색을 더 좋아하니까 빨강색으로 만들었어요(Duna)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첫째 질적연구를 통하여 공예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 청소년 개인의 사회·정서적인 변화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이 둘의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학급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학문의 즐거움과 유쾌함, 흥미를 보였으며, 수업참여의 긴장감이 완화되며 교육활동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며, 공예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청소년은 비장애 청소년 주류사회 속에 유리된 존재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인 능력이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예술적 욕구나 표현에의 욕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장애 학교 안에서 활동을 검열하거나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 학문의 즐거움을 체험하며 다른 교과에서도 자신감의 시도로 나설 수 있음 알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은 의욕 상실로 드러나며 학업적으로 유의미한 성취를 할 수 없는데 장애 청소년은 상시적인 실패로 무력감과 새로운 시도에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성공으로의 체험은 다른 교육활동에 새로운 시도에 조금씩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간이 즐거움과 편안함의 공간으로 변모되고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득하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업의 성취다 '공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의 성취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학업 성취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은 자신이 공부를 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은 스스로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학업의 공간이 '학업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지만 학업의 즐거움을 느끼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진정한 학업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애청소년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협동 활동을 통한 함께 있음, 공존의 느낌을 받았으며, 친구와 교사로부터 지지와 도움의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특수학급에서 발달장애청소년은 '장애'라는 깊은 공감대가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특수학급이라는 공간에서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도구'는 협업의 공간으로 함께 힘을 모아 욕구에 충족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비슷한 눈높이는 협업시에 정서적으로 교감하기에 유리하며 선호하는 활동에 따라 맡은 활동은 개별적으로 작동 할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는 나의 미적 감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며 발표력 신장은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기도 하며 친구들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늘어 또래의 관계가 더욱 곤고히 유지 될 수 있으며 교사와 청소년의 위계적 관계가 좀 더 유연하며 편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관계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된다. 비약적인지만 의사소통의 확대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언어 능력에 향상을 가져온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장애 청소년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교는 특수학급이라는 공간을 제외하고 발달장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비중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기기 어렵다. 이러한 학교생활에서 일반학급에서의 생활은 '위축적' 모습을 보이는데 인터뷰의 내용이 통합학급에서의 비장애 청소년과의 또래관계의 향상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으며 특수학급에서 장애 또래와의 관계 형성를 위주로 나타냄을 알 수 있었기에 일반학급에서의 향상된 긍정적 태도들이 일반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오랫동안 통합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왔지만 여전히 일반학급은 어려운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통합으로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예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면 약 8개월 동안 2시간 씩 16회기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학문간의 융합교육을 지향하였다. 16회기는 학사일정상 구성한 것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지 못한 제한사항이 있었다. 공예의 특성상 우리 생활 주변의 많은 것들이 공예교육활동의 재료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지만 실제도 더 많은 경

험과 체험을 통해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하는데 제한으로 여겼다. 추후 지속적인 양질의 공예교육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의 확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주체성 매우 중요하며 예술활동을 행위 주체자로서 이름 불리기도 하는데 자신이 기획하고 자신이 행하며 평가까지 행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공예교육활동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교사나 강사의 기획과 구안에 맞추어 동의하고 참여하고 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개별화교육이 다른 일반교육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는 특수교육에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적용하는데 공예교육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하기 보다는 학생의 의견을 물어 교사가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공예는 기술적 요소가 요구되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게 되는데 교사주도가 아닌 주체성 향상을 위해 학생이 수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사가 지원하는 교육의 공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남녀 관계없이 청소년 대상, 아동대상, 유아대상 연구도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Bogdan, R. C., & Biklen, S. K. (1998).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2] Gui-Hee Bang et al, "Culture and Society in Disability Studies - Ar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disability study perspective", Hakjisa, 106p, 2015

[3]Haward Risatti,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atic Expression", 2013

[4] Jung-Ae Kim, "A Study on Culture and Art Activities of the Disabled", Ky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13

[5] Kook-yeon, Kim,"A study on the awarenes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culture & ar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ongduk Women University Graduate Thesis, 2016

[6] Korean Culture & Arts Education Foundation, "A Study on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or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16p, 2007

[7] Kotler & Scheff, "Marketing the Arts in Cleveland: An In-Depth Surve", Cleveland Foundation,.1985, p.7, 1997

[8] Kyung K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icacy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9] Kyung-hee yang, "A Study on Integrated Art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otal Arts and Music, Vol. 2, No. 1, 1~26, 2008

[10] Kyung-Hee Yang, Won-Hee Park, "Development of Art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Culture and Art Trends of the 21st Century,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1, 157~181, 2006

[11] Kyung-Sook Cho,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Craft Education in the Primary Art Clas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15-16, 2008

[12] Nari Lee, "The Research of Modern Craft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rt Clas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4

[13] Ministry of Education, "2015 Statistics of special education", 2015

[14] Sam-rang Kim, "Introduction to Art Education , Seoul: mijinsa" , 1992

[15] Yeon-Joo Hwang, Yeon-Hee Chung, "Analysis and Prospect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y", Journal of Art Education, Vol.18 No.3, 1~27p, 2004[2]

[16] Yeo-Kak Yun ,"Reinvita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Research on the Principle of Education, Vol. 8, No. 1, 143~163, 2003

[17] Young-shim Kang, kyung Kim, A Study on Art Instructor Supporting Project for Special Schools and Teacher's Percep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15, No. 3, 113~134, 2011

이 민 혜(Lee, Min Hye)

- 2001년 2월 :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학사)
- 2009년 2월 :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석사)
- 2014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장애청소년, 권리옹호, 문화향유
- E-Mail : hredumin@gmail.com

허 인 열(Heo In Yeol)

- 2000년 2월 : 상명대 섬유디자인과(학사)
- 2003년 8월 : 상명대 섬유디자인과(석사)
- 2012년 2월 ~ 현재 :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관심분야 : 공예, 문화예술, 장애미술
- E-Mail : inyul0219@gmail.com